

[로스쿨 합격기]

준비하는 자에게 길이 있나니!

박준범

- 인천광역시 대인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5기생



I. 시작하며

정신없는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생활의 첫 학기가 지났습니다. 한숨을 돌리고 여유로운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민법 1회독, 2학기 과목 예습, 틈틈이 운동하기, 그 동안 읽지 못했던 책 읽기 등 수많은 계획들을 세웠으나, 인간이라는 동물이 간사한지라 열정적으로 세웠던 계획들이 조금씩 밀리기 시작하면서 나태한 나날들을 보내는 와중이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월간 고시계로부터 로스쿨 합격수기를 쓸 수 있는 우연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합격수기를 어떻게 써야 독자들에게 유익할까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로스쿨 입학에 결심하고 준비하던 때의 '생기'가 되살아남을 느꼈습니다.

이제 로스쿨도 도입된 지 5년이 넘었습니다. 그 동안 수많은 합격사례들과 합격수기들이 쌓였을 터, 그리하여 제 미천한 경험이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이 글이 로스쿨을 준비하는 수험생 단 한 명에게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제가 학부시절동안 겪은 (로스쿨 인가가

된 학교에 한정하여) 법학과의 마지막 학번(08학번)으로서의 고민과 로스쿨 입시 준비 과정을 솔직하게 전달해드릴 것을 앞서 다짐합니다.

II. 사법시험 응시, 로스쿨 진학, 군 입대의 갈림길에서

1. ‘로스쿨 법안’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된 2007년 7월의 어느 날

2007년 7월, 고등학교 3학년으로서 한창 수능공부에 열을 올리던 저는 학교에서 공부를 끝내고 자정이 넘어서야 귀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텔레비전에서 ‘로스쿨 법안’이 통과되었다는 속보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법학을 공부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법학과 진학을 생각해 왔었는데 로스쿨 법안이 통과되고 사법시험이 없어진다 생각하니 조금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대한민국 법조계에 이렇게 큰 지각변동을 몰고 왔는지 그때는 미처 알지 못한 채, 생각했던 대로 법학과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2. 1년 6개월이라는 짧은 사법시험 경험

막연하게 당연히 사법시험 준비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진학한 법대의 분위기는 1학년 때부터 급히 돌아갔습니다. 2017년이던 사법시험이 폐지되고 합격인원수도 점차 줄어드는 것이 확정되자, 부지런한 친구들은 1학년 1학기 때부터 이미 신림동에서 강의 테이프를 구입하여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저 또한 시류에 휩쓸려 ‘법전’도 제대로 읽지 못하는 상태에서 1학년 2학기부터 강의 테이프를 들으며 2010년 2월에 있을 1차 시험을 준비하였습니다.

평범한 서울대 학생으로서, 만 20살도 안 된 미성년자가 ‘어른들의 영역’인 민법을 이해하기에는 너무나도 버거웠습니다. 그 결과, 균형 있게 기본 3법을 공부하지 못하고 민법에 치중한 나머지, 공부에 소홀했던 형법 점수가 타 과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와 1차 시험에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1차 시험을 준비하는 동안 상상하지도 못할 스트레스, 시험이 폐지되기 전 까지 합격하지 못하면 어찌지 하는 불안감 때문에 사법시험 도전을 그만두고 여러 가지 진로의 가능성을 열어둔 채 3, 4학년을 보내자고 결정했습니다.

3. 방향의 끝에서 로스쿨 진학을 결심하기까지

로스쿨 진학, 군 입대 후 취직 등 진로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우선 학점부터 챙기는 게 급선무라 생각했습니다. 1, 2학년 때 사법시험 준비로 인해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학점을 적어도 3점 후반대로 끌어올리겠다는 마음으로 3학년과 4학년 1학기까지는 열심히 학교 수업에만 충실했습니다. 4학년 1학기를 마치고서도 마음의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리트 시험을 볼지 아니면 군대를 갈지 계속 갈팡질팡했습니다. 학점, 영어, 외부활동 등 소위 말하는 '스펙'이 평범했던 관계로 로스쿨에 진학하는 것도, 취업도 쉽지 않다는 것이 느껴지자 그 동안 너무 안일하고 소극적으로 살아왔던 제 자신이 한심스러워지면서 방향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입영 날짜가 나오니 이렇게 된 김에 우선은 군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군 입대를 하겠다고 부모님께 말씀드렸으나 부모님은 크게 반대하셨습니다. 외부적인 환경과 현실적인 제약 등으로 인해 본인이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오랜 상의 끝에 군 입대를 한 달 남긴 시점에서 로스쿨 진학을 결심하고 입대를 연기했습니다. 2013년 2월 말의 일이었습니다.

Ⅲ. 조금의 여유도 허락지 않았던 로스쿨 입시 준비 과정

1. 학점 끌어올리기

확고한 목표의식이 생기자 그 동안 안일했던 태도를 바로 잡고 차근차근 준비할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우선 8학기를 끝마쳤지만 아직 졸업학점이 남은 관계로 초과 학기(9학기)를 다니기로 결정했습니다. 1학기는 공인영어 준비, LEET 준비 등으로 바쁘듯하여 휴학하고 2학기에 다니기로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 방향하느나 망쳐버린 4학년 2학기 학점을 메우는 최후의 기간은 여름계절학기 뿐이었습니다. LEET 시험과 계절학기 시험기간과 겹쳐서 부담이 되었지만 적어도 성적표에 '재수강 가능 학점(C+ 이하)'만큼은 없어야겠다는 일념 하에 휴학 중 미리 예습 하여 계절 학기를 무사히 마치고 목표 학점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2. 공인영어점수 만들기 - TEPS와 TOEIC

우선 자료를 지원하기 위해 TEPS를 공부했습니다. 아무래도 단기간에 점수를 확 끌어올릴 필요가 있으므로 학원의 도움을 받는 것이 낫다 싶어 종로 어학원에

3월부터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TOEIC과 달리 TEPS는 요행이 통하지 않은 시험이라 고등학교 졸업 후 4년 만에 '제대로' 영어공부를 하려니 쉽지 않았습니다. 상대적으로 단어, 문법, 독해 위주의 고등학교 영어공부에만 익숙했던 터라 듣기 점수가 구멍이었습니다. 영어 잘하는 친구, 학원 강사님, 인터넷 등을 통해서 듣기 공부 방법에 대한 여러 조언을 들은 결과, 결국은 반복해서 듣고 많이 읽어보는 정공법만이 답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파트1 또는 파트2와 같이 단문의 경우에는 교재에 나온 표현을 모두 외우려고 노력했고 파트4의 경우에는 디테이션과 웨딩을 반복하였습니다. 의외로 알고 있었던 단어들도 '발음'을 잘못 알고 있어 들리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하여 발음기호에 따라 단어를 철저히 암기하고 반복해서 들으니 어느 정도 실마리가 보였습니다.

3, 4월의 노력 끝에 목표했던 TEPS 성적이 나오자 바로 TOEIC을 준비하였습니다. TOEIC은 한 번도 공부해 본적이 없어서 처음에는 유행과악하기에 급급했으나 TEPS보다 난이도가 낮다보니 시간이 갈수록 공부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했습니다. 5월 한 달간 학원에서 나눠 준 과제를 열심히 풀어가며 공부했고 그 달 말에 본 시험 성적 또한 목표한 대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공인영어성적을 갖추고 나니 어느새 6월이었습니다.

3. 너무나도 아쉬웠던 LEET 준비

공인영어점수 만들기, 그리고 6월 말부터 5주간 계절학기 수강으로 인해 예년보다 한 달앞서 보는 LEET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또한 이 시험이 공부한 만큼 점수가 나오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 수험생들 사이의 중론이었던 탓에 상대적으로 소홀히 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게다가, 새로운 텍스트를 한 번 읽고 바로 이해하는 것보단 하나의 텍스트를 오랜 시간 분석하고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것이 제 공부 성향에 잘 맞는지라 LEET에서 고득점을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약간의 '체념'적인 마음 상태도 있었습니다.

여하튼 우선 문제 유형을 파악하기 위해 언어이행, 추리논증 기출문제를 시간에 맞춰 풀었습니다. 수능의 언어영역과 비슷한 언어이해와는 달리 추리논증은 거의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접근법을 배우기 위해 기출문제 풀이 강의를 들었습니다. 계절학기 중간고사와 겹쳐 기출문제도 겨우 푼 상태로 시험장에 향했습니다. 실전문제풀이 연습을 못한 관계로 언어이해의 경우 시간관리가 되지 않아 2지문을 놓쳤습니다. 다행히 추리논증의 경우 강의를 들으며 어느 정도 감을 익혔기 때문에 언어이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수월했습니다. 그러나 언어이해에서 평균

이하의 점수가 나와 전체적인 LEET 점수는 좋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생각해보니 조금 더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준비했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물론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공부한다고 해서 점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진 않겠지만 문제풀이 순서의 전략을 잘 짰다면, 당일 날 컨디션을 최고로 하기 위해 시험 며칠 전부터 먹는 것, 수면시간 조절하기, 실전문제 풀이 등에 신경을 썼다면 어땠을까 하는 후회가 남았습니다. 올해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로서는 저처럼 '어차피 공부하고 준비해도 점수가 크게 오르지 않을 거야.' 같은 식의 태도를 지양하고 성실히 준비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한편, 논술의 경우 철저하게 채점하여 입시에 반영하는 학교가 극소수였기 때문에 문제의 조건에 따라 시간 맞춰 작성하면 된다는 여유로운 마음가짐으로 시험에 임하였습니다. 기출문제를 분석하고 목차를 작성하는 식으로 준비하였고 실제 시험장에서도 제 시간 안에 나름 만족스럽게 작성하고 나왔습니다.

4.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었던 자기소개서 작성과 면접 준비

9월이 돼서야, 자기소개서 작성 및 면접 준비를 위해 스테디에 가입했습니다. 우선 9월은 지원할 학교를 선정하고 자기소개서를 쓰는데 할애했습니다. LEET 점수가 수험생 사이에서 고득점의 최소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120점'이 넘지 않았으므로 서울 소재의 대형 로스쿨은 일찌감치 포기했습니다. 사실 재수를 할지 상대적으로 리트를 덜 보는 곳으로 지원할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LEET는 수능과 달리 이를 위해 무려 '1년'을 투자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도박이었고 변호사시험 합격률, 군(공익)법무관 임관 문제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으며, 이제 5기부터는 대학교 입학 후부터 아예 로스쿨 진학만을 위해 학부 1학년 때부터 '스펙'을 관리한 친구들로 인해 점점 더 '스펙 인플레'가 심해질 것으로 예상하여 어디라는 1년 빨리 들어가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LEET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은 서강대를 선택했습니다. 자기소개서, 논술, 면접의 비중이 높은 덕에 매년 경쟁률이 10대 1에 육박하는 학교라 약간의 모험일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으나 지금 제 상황에서는 최선의 학교라 판단하였습니다. 상대적으로 '고스펙' 수험생들이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로 몰리는 (나)군에 서강대를 지원하고 (가)군은 후회를 남기지 않겠다는 뜻에 자고를 지원했고 예상대로 1차에 탈락했습니다. 이에 서강대 자기소개서 작성과 면접 준비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소개서의 경우, 특별한 외부경력 등이 하나 없는 평범한 법대생이었기 때문에 로스쿨 지원동기, 학업계획서 등을 구체적이고 자세히 써서 차별화를 꾀했습니다. 막연하게 인권변호사, 국제변호사, 기업법무 변호사 등이 되겠다는 서술을 피하고 제가 학부시절에 배웠던 '회사법'의 내용을 최대한 살려서 기업법무 중에서도 '기업의 도산과 관련된 법률분쟁을 다루는 변호사가 되겠다는 큰 방향을 잡고 교과서, 관련 논문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그 후엔 스터디 원들과 3주 내내 읽어보고 첨삭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크게 느꼈던 것은 나의 의도를 상대방이 잘 파악할 수 있도록 글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글의 구성을 짜임새 있게 다듬어야 합니다. 가령, 내가 로스쿨에 지원한 동기가 후에 작성할 학업계획서 및 진로계획서에 반영이 되어야 한다거나 내가 학부시절 했던 여러 활동들이 '어떤 점에서' 로스쿨에 진학하는데 영향을 주었고 이것이 본인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설득력 있게 서술해야지 단순히 본인이 어떠한 활동을 했다는 나열식 서술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수많은 지원자들의 자기소개서를 교수들이 언제 다 읽겠냐고 할 수 있겠으나, 적어도 서강대만큼은 교수님들께서 한 자 한 자 정성들여 읽어보신다고 하셨기 때문에(다른 학교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편의 논문을 쓰듯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내용에 치중하느냐 자칫 소홀히 할 수 있는 띄어쓰기, 맞춤법, 주술 호응 등 기본적인 문법 사항도 막판에 꼭 검토하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면접의 경우 원서접수를 한 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각 스터디 원들이 지원한 학교에 맞게 기출문제를 제시하고 실전 연습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동영상 찍어 시선처리, 목소리 톤, 말 빠르기, 자세 등을 체크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다소 민망했지만 영상을 보면서 본인의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로스쿨 면접 문제는 대부분 정답이 있기 보단 학생의 논리가 얼마나 일관적이고 균형 있는지 확인하는 것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떨지 않고 최대한 차분하게 답변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학생들의 면접 수기를 읽어보면서 당일 날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시뮬레이션 하기도 했습니다. 면접 대비와 관련해 수많은 교재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은 단시간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핵심 이슈에 대해 수박 겉핥기식의 정리밖에 되어있지 않으므로 '참고'정도만 했습니다. 대신 마이클 셸델 교수의 [정의는 무엇인가] 라는 책을 두 번 읽으면서 단순히 내용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책에 놓여 있는 '사과의 틀'을 체화하고자 하였습니다.

IV. 마치며

로스쿨 입시는 대학 입시와는 달리 점수로 줄을 세워서 합격자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많은 '변수'들에 유의해야 합니다. 서강대 5기 사람들 일부의 '스펙'을 보면 이 학교에 오기 아까울 정도인 경우도 있었고 조금은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도 그 외 다른 분야에서의 능력이 뛰어난 등 저마다 강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강점이 무엇인지 냉철히 판단하고 이 강점을 원하는 학교는 어디인지 찾아 전략적으로 원서를 써야 할 것입니다. 특히 수험생 중 (저도 한때는 마찬가지였지만) 고작 몇 장의 자기소개서, 고작 몇 십 분의 면접이 과연 그 사람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진 학생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경험상'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점, 영어, LEET, 외부활동에만 치중하지 말고 합격자 발표가 날 때까지 모든 과정을 성실하게 준비하셨으면 합니다. 남들보다 더 신경 쓴 '작은 정성'이 여러분을 로스쿨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또 하나 명심해야 할 것은, 로스쿨 입학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점입니다. 저 또한 로스쿨에 합격한 후 세상을 다 가진 듯 여유로운 마음으로 겨울방학을 보냈었는데 입학 후에 상상할 수도 없는 '공부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3년 간 내 남은 모든 열과 성을 다 해야겠다는 굳은 마음가짐으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아들을 위해 항상 응원해주는 가족과 지금 현재 각 로스쿨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스터디 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